

졸업생 소개

안녕하세요. 한림성심대학교 간호학과 21학번 한0영입니다.

2025년 2월에 졸업하여, 현재 강동성심병원 수술실에서 6개월 차 신규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 소개 및 업무 소개

강동성심병원은 1986년 동남권 최초의 대학병원으로 개원한 이래 40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 강동구의 대표 병원입니다. 또한 30개 진료과와 18개 전문센터를 중심으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첨단 로봇수술 장비와 스마트 의료 시스템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사하여 신규간호사가 되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일주일 동안 신규간호사 교육을 진행합니다. 기본적인 vital sign을 check하는 것부터, 직접 약물 계산을 하고 모형에 투약해보기도 하며 실제로 병동이나 ICU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직접 만져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일주일 동안의 교육 기간을 마치고 나면, 부서배치를 받고 부서로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외과 병동, 내과 병동, ICU 각각 부서에 해당하는 교육 전담 간호사 선생님이 부서로 오셔서 교육을 해주시며, 신규간호사가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수술실의 경우 교육 전담 간호사가 따로 없어서, 부서 내에 차지 선생님을 비롯해 선배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교육해주십니다.

저는 수술실로 배정을 받았고, 4개월 동안 URO 파트에서 RIRS, TURP, RRP, LRP, NUx, Holec, TOT 등 다양한 수술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재는 로봇 수술 파트로 오게 되어 다빈치 XI 및 SP 로봇 시스템을 갖춘 2개의 전용 수술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주로 GY, URO, GS 과에서 다양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과정

교내에서 진행하는 자소서 특강에 참여하여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 어떤 점을 중점으로 써야 하는지 등등을 배우고 선생님께서 1:1로 첨삭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자소서를 작성했습니다. 자소서는 먼저 기본 틀을 작성한 뒤,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며 채용 공고가 올라오기 전에 미리 완성해두었습니다. 지원하고 싶은 병원이 있다면 병원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 '간0모' 등에 검색하여 이전년도 자소서 문항을 참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리 자소서를 준비했습니다. 의사 파업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채용 공고가 4학년 2학기에 집중되어 한꺼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둔 자소서를 기반으로 각 병원의 비전과 추구하는 인재상을 파악한 뒤 병원에 맞게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지원했습니다.

면접준비는 동기들과 함께했습니다. '초록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암기하여 숙지하였고, 떨지 않고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눈을 마주치며 대답하는지, 고개를 과하게 움직이지는 않는지 세세하게 관찰하고 서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니다. 책만 여러 번 보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의료지식과 하고자 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또렷하게 말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 중 모의면접이 가장 의미있었고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모의면접 프로그램은 각 재단병원의 간호부장님과 팀장님께서 학교로 직접 오셔서 실제 면접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실제 면접에 대한 긴장감을 미리 경험할 수 있었고, 답변 태도나 말투, 자세까지 구체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모의면접 때 뵈었던 분을 실제 면접장에서 다시 뵈게 되니 긴장감이 훨씬 덜했고, 덕분에 떨지 않고 면접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3학년 2학기부터 자소서 쓰는 연습을 하고, 4학년 2학기 때 공고에 맞춰 자소서 수정을 더불어 면접준비도 하였고, 11월부터는 국가고시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막 학기에는 과대표도 함께하며 체력적으로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를 항상 생각했고, 국가고시가 끝나면 하고 싶은 것들 버킷리스트를 세우고 이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또한 주말이나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리프레쉬 할 수 있는 날을 가졌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사하면 부서 환경, 같이 일하는 동료, 병원 분위기 등등 모든 것이 낯설고 이방인이 된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가 한 달은 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집에 와서는 많이 울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멀리 보려고 하지 않았고, 당장 내일 있을 수술에 대해 공부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실수했다면,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공부하며 나만의 수술 프로시저를 적고, 참고사항을 적어가며 복기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적응하라, 공부하라 많이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구요. 하지만, 어제 했던 실수를 오늘은 안하고,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은 알고 이 모든 과정이 시간이 지나면 자신감이 되며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서 원하는 병원에 취업 성공하시고, 먼 훗날에는 동료 간호사가 되어 함께 일하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